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

성경본문 〈창세기 15장 1절 ~ 14절〉

[1]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 왕을 포함한 5족속과 시날 왕을 포함한 4족속이 싸워서, 5족속의 왕들이 패배해서 그 가운데 한 곳이었던 소돔이 약탈당했고,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롯도 잡혀갔습니다. 아브람이 곧 잡혀간 롯을 따라가 구원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준비해 왔던 일들에 꽤 큰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주민이었던 아브람에게는 그 곳에 사는 족속들의 싸움 한 가운데로 들어간 셈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세력에게 이제는 다른 족속과 싸워서 이길 만한 세력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의미를 2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1. 하나님은 상속자와 자손을 약속하여 주셨고, 이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도무지 어떻게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십니다.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2.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여 주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과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아브람이 믿었다고 했는데,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약속을 구했습니다.
[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약속 방법을 통해서 친히 아브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제물을 둘로 쪼개시고, 그 사이를 오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속을 하는 당사자가 이렇게 되어도 좋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좋은 것을 우리를 주시려고 할 때에는 마땅한 시간과 대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성숙, 성장하여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은혜와 기다림이 합쳐져 주님의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자손과 땅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진정한 성숙의 과정이 됩니다.

주님께 마땅히 겪어야할 과정이 있다면, 피해가도록 구할 것이 아니라, 능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여야겠습니다.

〈기도제목〉
1.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2. 주님, 고난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획대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